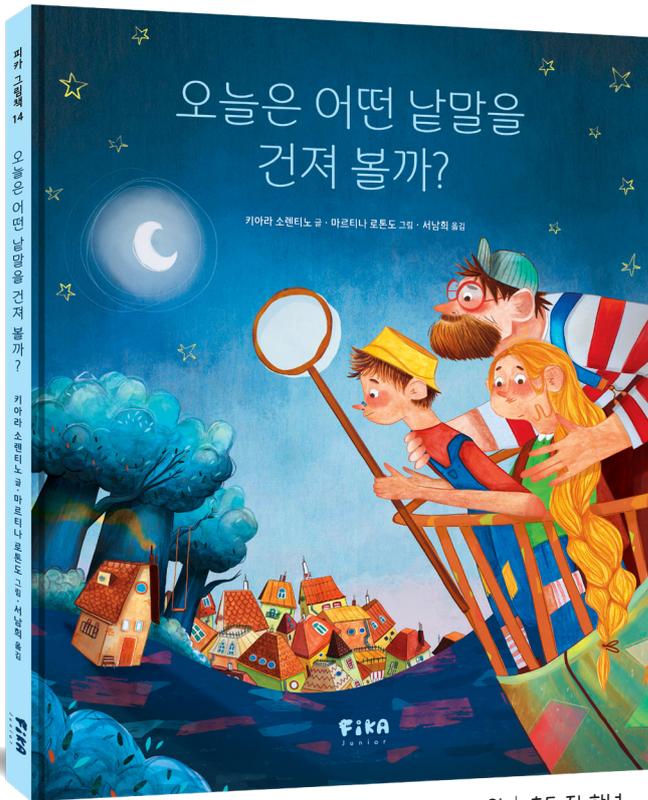


오늘은 어떤 낱말을 건져 볼까?

독서 활동지

마음을 움직이는 낱말의 힘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그림책



키아라 소렌티노 글 | 마르티나 로튼도 그림 | 값 15,000원 | 초등 전 학년



“낱말들에도 생명이 있어 자신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란다. 동글동글한 낱말이 잘 쓰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글게 품어 주기를, 깃털처럼 나풀거리며 세상을 탐험하기를, 거칠거칠하지만 단단하게 보호해 주기를, 무겁지만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낱말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쓰이지 못하게 흩어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며 숨어 버리기도 해서 정작 쓰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는 낱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낱말을 건져서 자신의 낱말 항아리 속에 담아 두었을까? 마음속 깊이 담아 놓고 싶은 낱말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은 오늘, 나는 그동안 내가 건져 낸 낱말을 아주 잘 골라 근사하게 써 보고 싶다.”

- 집필 오은경(노음초등학교 교사)

현직 초등교사가 전하는 《오늘은 어떤 낱말을 건져 볼까?》의 매력

이 책을 펼쳐 보니 잊고 있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오래전,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 속에 살고 있을까? 선생님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무엇이니?” 하고 물어봤다. 나는 아이들에게 그리 화를 잘 내는 편도 아니고, 아이들과 제법 잘 지내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말하길, 내가 “가까이 오지 마.”, “저리 좀 가.”라는 말을 자주 쓴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이들의 말을 곧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나를 드러내는거라고 아이들에게 곧잘 말했지만, 아이들의 온갖 요구에 지쳐 있는 내 모습이 이런 말로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지금 나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낱말 속에 살고 있을까?

이 책에는 낱말을 건지는 어부 가족이 나온다. 어부 가족이 건진 낱말은 ‘비눗방울처럼 동글동글한 낱말’, ‘나무껍질처럼 거칠거칠한 낱말’, ‘깃털처럼 나풀나풀한 낱말’, ‘돌덩이처럼 무거운 낱말’과 같이 나뉜다. 꼭 그런 모양으로 쓰여 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낱말을 찾아 여기에 넣어 둘까? 어떤 모양으로 쓸까? 궁금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많은 낱말들을 어떻게 나눌까? 고작 가나다순이나 감정, 신체, 물건, 동식물 식으로 딱딱하게 세웠던 분류 기준에 어떤 느낌을 담은 낱말 주머니를 만들어 낼까? 질문이 자꾸 일어난다.

낱말들에도 생명이 있어 자신이 제대로 쓰이기를 바란다. 동글동글한 낱말이 잘 쓰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글게 품어 주기를, 깃털처럼 나풀거리며 세상을 탐험하기를, 거칠거칠하지만 단단하게 보호해 주기를, 무겁지만 진지하게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낱말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쓰이지 못하게 흩어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며 숨어 버리기도 해서 정작 쓰고 싶을 때는 쓸 수 있는 낱말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상하게도 책장을 넘길 때마다 책에 나오지 않는 낱말이 더 많이 떠오른다. 자꾸 쓰고 싶었던 낱말은 무엇이었을까? 제대로 쓰지 않아쫓아내 버린 낱말은 무엇이었을까? 또 어부 가족이 낚은 것에는 완성되지 않는 낱말 조각도 있다. 그저 모음에, 자음에 그리고 점과 곡선에 불과했던 부호들이다. 그것들도 다시 서로 만나면 꼭 필요한 낱말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참 기쁘겠다. 알맞은 낱말이 떠올라 꼭 맞춤옷처럼 쓰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다.

어부 가족은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이 같은 낱말을 잡고 싶다. 그것들은 밝지만 빠르고 금세 사라져 버린다. 소중한 것들이 늘 그렇듯 말이다. 하지만 어부 가족은 알고 있다. 어떤 낱말은 꼭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직접 말하거나 쓰지 않아도 마음속에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어떤 낱말을 건져서 자신의 낱말 항아리 속에 담아 두었을까? 마음속 깊이 담아 놓고 싶은 낱말은 무엇일까? 이 책을 읽은 오늘, 나는 그동안 내가 건져 낸 낱말을 아주 잘 골라 근사하게 써 보고 싶다.

오은경(노음초등학교 교사)

경북 울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28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오랫동안 학교 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상을 받았고, 다달이 낸 문집으로 <우리교육>에서 주관하는 ‘좋은 학급문집 공모전’에 당선되었으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책읽기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다.

• 집필도서 《여덟 살 글쓰기》

흩어진 낱말을 찾아라!

어부의 그물에 자음, 모음, 문장부호가 잔뜩 걸렸어요. 어디서 태풍이 불었나 봐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려서 낱말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낱말이었을까요? 흩어진 조각을 모아 낱말을 모아 주세요. (모양을 돌려도 된답니다.)



1 찾은 낱말

예시 강아지, 보름달, 나뭇잎, 고마워 예시 그림 속에 있는 낱말보다 더 많은 낱말을 찾아봐요!

2 위에서 찾은 낱말을 이용해서 태풍이 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상하며 글을 써볼까요?

예시 깜깜한 밤이었어. 감기 걸린 강아지는 냄새를 못 맡아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릴 뻔했어. 그런데 나뭇잎 사이로 밝게 빛나는 보름달 덕분에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해 냈지. 강아지는 보름달을 향해 말했어. "길을 밝게 비춰 줘서 고마워!"

우리 집(교실)에서 건진 낱말

오늘은 어부 가족이 우리 집(교실) 위로 날아왔어요. 우리 집(교실)에서 자주 쓰는 낱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아요. 어부 가족은 우리 집(교실) 위에서 어떤 낱말을 건질까요?

1 아래 낱말들이 쓰인 상황을 간단한 역할극으로 만들어 봅시다.

왜요?

몰라요?

그냥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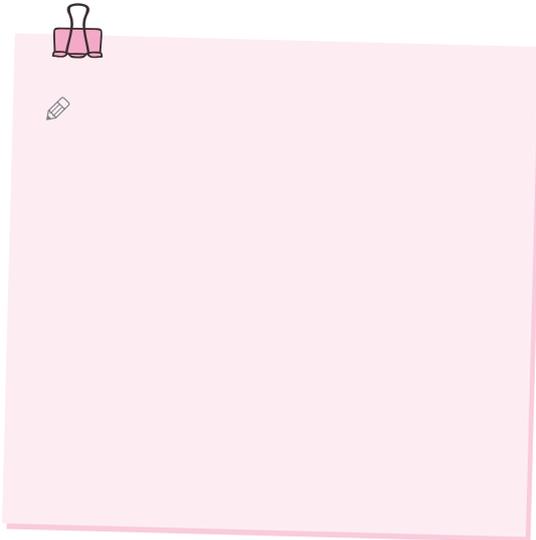
귀찮아요.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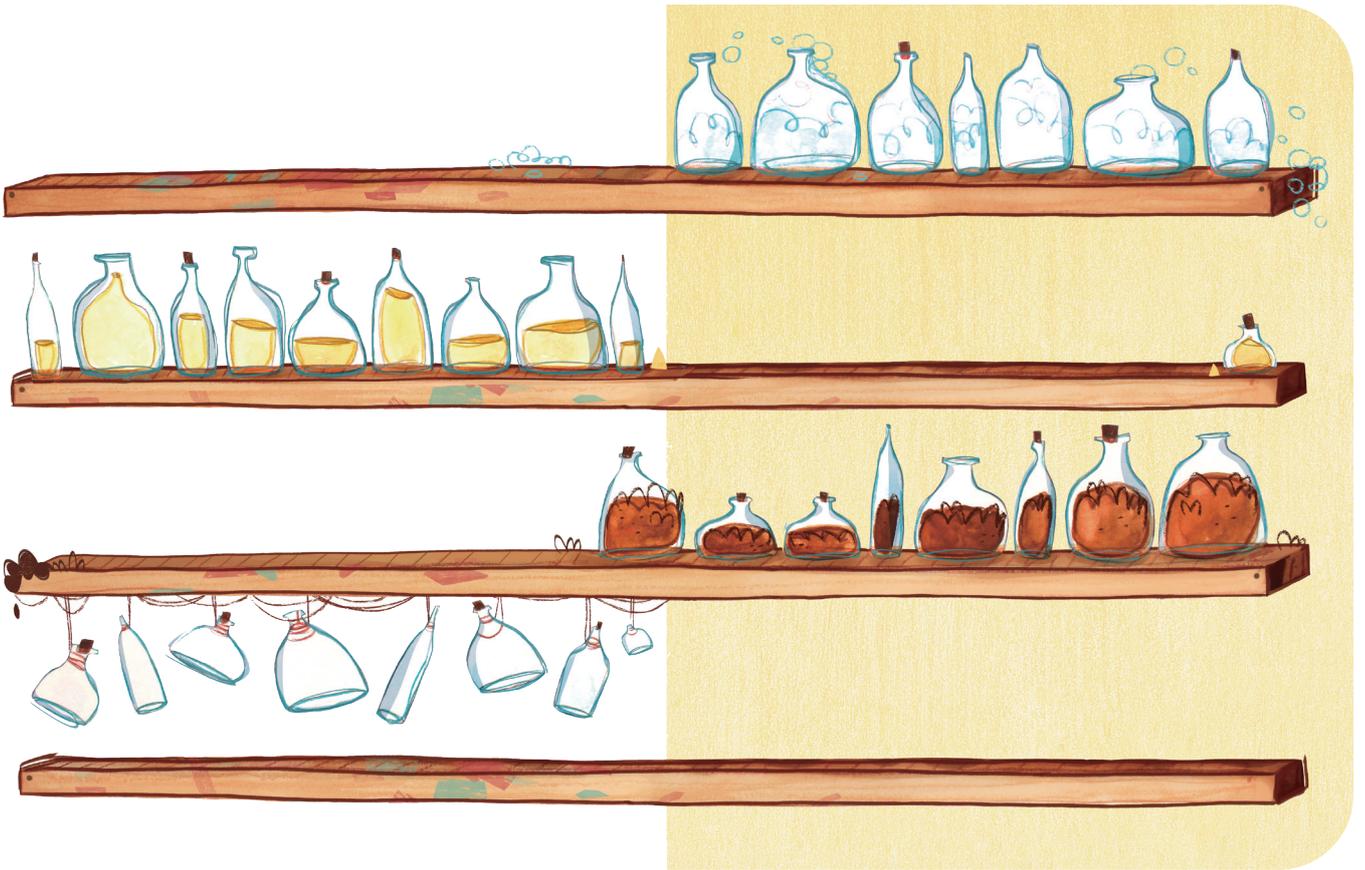
~해 주세요!

예쁜 짓!

2 어부 가족에게 전해 주고 싶은 '우리 집(교실)의 낱말'은 무엇인가요? 낱말 카드에 크게 적어서 어부 가족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낱말인지 느낌을 여러분만의 글자 모양으로 써 주세요.



① 여러분의 날말 향아리에는 어떤 날말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날말 가운데 가장 보물 같은 날말을 보물 종이에 적어 보세요. 여러 개라도 좋아요.



② 날말 보물찾기 활동

1. 날말을 적은 종이를 잘라 보물 상자에 담아 봐요. (보물 상자는 색종이를 접어 직접 만들면 더욱 좋아요.)
2. 보물은 찾기가 어렵지요. 이제 보물을 숨기러 나가 볼까요? 너무 멀리, 너무 깊숙이 숨기면 친구가 찾기 어려워요. 보물이 묻히면 너무 아까워요. 하지만 보물이 너무 쉽게 찾아져도 보물 같지 않아요. 조금은 힘들게 찾아야 더욱 소중한답니다.
3. 이제 친구들이 숨겨 둔 날말 보물을 찾으러 가 볼까요?
4. 보물을 찾은 친구와 소중한 보물을 숨겨 준 친구와 함께 날말을 크게 외치며 축하해 봐요!



어부 가족에게 이름을!

① 어부 가족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지어 보세요. 친구나 부모님과 머리를 맞대고 더욱 멋진 이름을 지어 줘도 돼요!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들 이름: 

② 은하수를 향해하는 배에도 이름을 지어 볼까요?

배 이름: 



③ 멋지게 이름표를 만들어 붙여 줘시다.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들 이름



배 이름



은하수에 날말이 부러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쓰던 날말이 은하수에 부러졌어요. 어떤 날말이 부러졌을까요?
[준비물: 종이 더미]

1 여러분이 생각하는 날말들을 적어 봐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비눗방울처럼 둥글둥글한 날말



깃털처럼 나풀나풀한 날말



나무껍질처럼 거칠거칠한 날말



돌덩이처럼 무거운 날말



반딧불이처럼 밝고 빠른 날말

2 준비한 종이에 날말들을 하나씩 적은 다음 바닥에 놓고 길게 늘어 놓아요. 이제 날말을 건져 볼까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해 봐요. 한 사람이 몸으로 날말을 표현하면 다른 한 사람은 어떤 날말인지 맞춰 보아요! 맞힌 날말은 건질 수가 있어요. 차례를 바꿔 해 보세요. 시간은 3분이에요!

3 건진 날말들은 어부 가족들처럼 항아리에 나눠 담아 보아요.

